‘뒤탈’ 많은 렌털

정수기·비데 등 관리 나 몰라라…기준치 10배 세균 검출도

정수기나 비데 등을 대여해 사용하는 렌털(rental) 제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여회사에서 제대로 관리나 청소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는 정수기 제품을 대여회사에서 제때 청소해주지 않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세균이 발견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홈쇼핑을 통해 C회사의 정수기를 월 1만9천900원에 대여한 직장인 A(여·37)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구입 당시 정수기회사 측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정수기 내부를 청소해주는 것은 물론, 6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해준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청소와 필터교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정수기를 한 번도 청소해주지 않더라’고 물어봐서 그제야 문제를 파악했다”며 “회사 측에서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A씨가 지난 13일 다산생명과학원(주)에 의뢰한 정수기의 ‘알칼리수’와 ‘정수물’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알칼리수’는 일반세균 기준치(100 CFU/mL이하) 보다 10배 초과한 1100CFU, ‘정수물’은 8배 초과한 860 CFU가 나왔다.

A씨는 “철저한 관리를 해준다는 대기업에서 관리는커녕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수개월간 세균이 득실거리는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회사원 B(53)씨는 지난 2003년 초 J정수기 회사 제품을 렌털했지만 수개월 후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했다. 하지만 최근 J정수기 회사를 인수한 W회사 측이 “정수기를 렌털해간 소비자들이 그동안 밀린 렌탈료와 기계값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B씨는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정수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보관해 왔는데 뭘 보상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올해 정수기, 비데 등 렌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원 건수는 27건. 이미 지난해 1년간 접수된 민원 28건에 육박했다.

소비자들은 ▲사후관리 부실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무료사용을 미끼로 한 계약강요 ▲렌털 물품의 품질불만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수기 필터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등의 품질 문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이 청구돼 소비자 불만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소비자상담실 임미희 부장은 “계약할 때 위약금이나 서비스 부분에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정수기업체 등 관련단체도 철저한 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촛불 수배 5명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다 잠적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수배자 중 5명을 6일 오전 1시 45분께 강원 동해시 묵호동 한 호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검거된 수배자는 박원석(38)·한용진(44)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백성균(30) 미친소 닷넷 대표, 김동규(34) 진보연대 정책국장, 권혜진(35)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38분께 박씨 등 수배자들이 동해시 묵호동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수사팀을 보내 3층과 4층에 있던 수배자 4명을 붙잡았으며 앞서 혼자 호텔을 잠시 빠져나왔던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이날 검거된 5명 외에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현재 수배 중인 사람은 김광일(34) 다함께 운영위원과 오종렬(70) 진보연대 공동대표, 주제준(38) 진보연대 사무처장, 이석행(50) 민주노총 위원장 등 4명으로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허위 서류로 보조금 탄 50대 농민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6일 허위 서류를 꾸며 농업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보조금 예산·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황모(51·농업)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농민 윤모(64)씨와 농약상 김모씨(37)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울교회 장로 6명이 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 내 기념탑 앞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5월 영령들을 위한 추모 묵념을 올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18 왜곡’ 이종윤 목사 빠진 채 서울교회 장로들 5·18 묘지 방문

예배 도중 5·18 민중항쟁을 왜곡한 이종윤 목사가 소속된 서울교회 장로들이 6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공식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방문 목적이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교회 소속 장로 6명이 이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그러나 정작 왜곡 발언의 당사자인 이 목사는 5·18 민주묘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은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을 한 서울교회 장로들은 이날 민주묘지 입구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뒤 기념탑에서 기독교 의식으로 분향을 마쳤다. 또 이들은 5·18 민주묘지 관리소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30여분간 희생자들의 묘역을 둘러봤다.

특히 5·18 민주묘지 내 추모관 영상실을 찾은 이들은 5·18 역사왜곡 발언과 관련, 5·18 유족회 정수만 회장으로부터 5·18의 진실과 참상’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참배 일정을 마친 이들은 이번 방문이 “사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 왔다”고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교회 오 모 장로는 “광주시민 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이 목사의 발언은 결코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 장로는 “예배 도중 목사님이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과대포장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결코 5·18의 진실을 왜곡·폄하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의 형식적인 참배에 일부 5월 관련단체 회원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은 이 목사가 참배 행렬에 빠져 있자 참배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곧바로 5·18 민주묘지를 떴다. 또 일부 회원들은 참배를 마치고 나온 이들에게 거센 항의를 하며 이들이 타고온 승합차를 가로막기도 했다.

5월 관련단체 관계자는 “파문을 일으킨 이 목사는 정작 5·18 민주묘지를 찾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죄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공기업 지사장은 사업주 아닌 사용인”

광주지법 “산업재해 주된 책임 지지 않아”

공사(公社)의 지사장은 현장 관리감독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의 주된 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6일 지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의와 문어적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사업주는 법인 사업체일 때 법인 자체, 개인 사업체일 때 개인대표자를 이른다”며 “한국철도공사 전남지사장이었던 최씨는 사업주가 아닌 공사의 사용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6년 8월 28일 광양역에서 작업 중이던 전남지사 소속 근로자가 톱날에 다쳤는데도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시·도 당사 도둑

지난 4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전남 시·도 당사 4층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현금과 수표 등 1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또 이 건물 1층 광주시 장애인협회 사무실에도 침입, 현금 30만원을 훔쳐갔다.

경찰은 공문이나 서류등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문 사무실털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동종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또 편의점 강도

6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F편의점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들어와 혼자 있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편의점에 설치된 CCTV 화면과 “범인이 170cm의 키에 모자를 썼다”는 종업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동종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층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비에 젖은 작업화 보고 ‘슬쩍’

쌍나팔

○…3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쪽방 옆 이웃방에서 비에 젖은 작업화를 훔쳤다가 절도혐의로 경찰에 입건.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자신의 월세방 옆에서 살던 B(35)씨의 방 앞에 놓여 있던 작업화(시가 3만5천원)를 훔쳐 신고 다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일용직 노동자로 월 8만원의 쪽방에서 살고 있는 A씨는 이날 비가 와 일을 하지 못해 집에 돌아온 후 우연히 B씨의 방 앞에 비에 젖은 작업화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가져갔다고.

○…A씨는 경찰에서 “신발이 없다 보니 순간적인 욕심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